<h1>나 혼자만 레벨업-23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jd3e5b37f58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3화</p>  
<p>진우는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황동석 일행을 하나씩 훑어보았다.</p>  
<p>황동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갑자기 놈의 손에 나타난 단검도 놀라웠지만, 그보다 박준태의 죽음이 더 충격적이었다.</p>  
<p>'E급 헌터가 어떻게 D급 헌터를 한 번에?'</p>  
<p>무슨 수작을 부렸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방심은 금물이었다.</p>  
<p>신중해야 했다.</p>  
<p>황동석은 옆으로 눈빛을 보냈다.</p>  
<p>'규환아, 한방 더 먹여 줘라.'</p>  
<p>조규환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.</p>  
<p>이번엔 실수하지 않는다!</p>  
<p>속으로 다짐한 조규환의 손끝에 빛이 모여들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러나 빛의 화살이 손끝을 떠나기 전에, 진우가 먼저 조규환의 코앞에 나타났다.</p>  
<p>"어, 어?"</p>  
<p>조규환이 입을 떡 벌렸다.</p>  
<p>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.</p>  
<p>'화력이 강하고 체력이 약한 마법계열 헌터부터.'</p>  
<p>이미 머릿속부터 모든 계산이 끝난 뒤였다.</p>  
<p>단검이 조규환의 목에 박혔다.</p>  
<p>푹!</p>  
<p>"커헉!"</p>  
<p>조규환은 구멍 난 목을 붙잡고 쓰러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"죽여!"</p>  
<p>"으아아아!"</p>  
<p>그것을 신호로 주위에 있던 헌터들이 전부 진우에게 달려들었다.</p>  
<p>진우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침착하게 적들의 움직임에 집중했다.</p>  
<p>소리가 사라지고, 시간이 느려진다.</p>  
<p>38포인트까지 올라간 민첩 스탯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했다.</p>  
<p>지척에서 빈틈없이 쏟아지는 검, 창, 화살을 차례대로 막거나 피해 냈다.</p>  
<p>헌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.</p>  
<p>'어, 어떻게 E급이 이런 움직임을?'</p>  
<p>'너무 빨라!'</p>  
<p>'공격을 맞출 수가 없다!'</p>  
<p>헌터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해 갔다.</p>  
<p>속도는 상대적인 것.</p>  
<p>그들의 눈에는 진우의 움직임이 가공할 만큼 빠르게 느껴졌다.</p>  
<p>진우는 헌터들 사이를 누비며 그들의 급소를 하나씩 베어 갔다.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'효과: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단검 '카사카의 독니'의 특수 효과가 연달아 터지며 헌터들을 혼란에 빠트렸다.</p>  
<p>"모, 몸이 안 움직여! 으악!"</p>  
<p>"마법? 마법이야?"</p>  
<p>"이 개새끼가!"</p>  
<p>['효과:출혈'이 발동합니다.]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'효과:마비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"컥!"</p>  
<p>"대, 대체 저 새끼 정체가 뭐야!"</p>  
<p>"으아아악!"</p>  
<p>여기저기서 비명들이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진우를 에워쌌던 다섯이 순식간에 쓰러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털썩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1명]</p>  
<p>[처치한 적의 숫자: 7명]</p>  
<p>진우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거구의 털보, 황동석.</p>  
<p>황동석은 비장한 얼굴로 방패를 바닥에 내던졌다.</p>  
<p>그리고 기합을 넣었다.</p>  
<p>"우워어어어어어!"</p>  
<p>황동석이 이내 바닥을 박차며 돌진했다.</p>  
<p>쿵, 쿵, 쿵, 쿵!</p>  
<p>그는 달리면서 생각했다.</p>  
<p>이쪽은 탱커, C급에서도 상위에 속했다.</p>  
<p>저쪽은 아마도 딜러.</p>  
<p>움직임을 보아 제법 민첩하긴 하다만 '강화' 스킬을 뚫을 만한 파워는 없을 터.</p>  
<p>'겨우 단검 따위로는 내게 치명상을 줄 수 없다!'</p>  
<p>부딪치는 순간 박살 나는 쪽은 성진우다!</p>  
<p>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, 황동석은 어깨를 들이밀었다.</p>  
<p>"강화!"</p>  
<p>그때 시야가 빙그르르 회전하더니 어느새 던전의 천정이 보였다.</p>  
<p>쿵!</p>  
<p>머리가 흔들리며 목과 등에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.</p>  
<p>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.</p>  
<p>애를 쓰던 황동석은 다시 바닥에 드러누웠다.</p>  
<p>"쿨럭!"</p>  
<p>입에서 피가 튀어나왔다.</p>  
<p>'나를... 나를 집어 던진 건가?'</p>  
<p>이 황동석이가 힘에서 졌다고?</p>  
<p>힘 싸움에서?</p>  
<p>"E급 따위가 어떻게..."</p>  
<p>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했다.</p>  
<p>C급 다섯에 D급 셋이 순식간에 당했다. 놈은 절대 E급 수준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가 황동석 옆에 섰다.</p>  
<p>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황동석.</p>  
<p>이미 승부는 났다.</p>  
<p>이것이 스포츠나 대련이었다면 여기서 끝났을 것이다.</p>  
<p>하지만 여기서 그만둘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"자, 잠깐."</p>  
<p>황동석이 손을 들어 올렸다.</p>  
<p>"사, 살려다오! 돈, 돈이라면 주마. 얼마든지 주마. 목숨만 살려 준다면..."</p>  
<p>"세 번."</p>  
<p>진우가 차갑게 말했다.</p>  
<p>"세 번이나 죽이려 한 상대에게 목숨을 살려 달라니 좀 뻔뻔하지 않나?"</p>  
<p>보스 방 입구를 막아서 한 번.</p>  
<p>유진호를 시켜서 한 번.</p>  
<p>그리고 조규환의 마법으로 또 한 번.</p>  
<p>황동석은 모두 세 차례 진우를 죽이려 했다.</p>  
<p>방금 싸움은 뺀다고 해도 말이다.</p>  
<p>기브 앤 테이크.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진우는 받은 만큼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.</p>  
<p>그게 좋은 것이든, 나쁜 것이든.</p>  
<p>악의는 악의로 갚는다.</p>  
<p>타협은 없었다.</p>  
<p>목숨 구걸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황동석이 눈을 부릅뜨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.</p>  
<p>"너, 너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! 내 동생이 누군 줄 알고 너 따위가."</p>  
<p>두둑!</p>  
<p>목뼈가 부러진 황동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"컥."</p>  
<p>황동석의 눈에 흰자위가 드러났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처치해야 할 적의 숫자: 0명]</p>  
<p>[처치한 적의 숫자: 8명]</p>  
<p>드디어 퀘스트가 끝났다.</p>  
<p>"후우-."</p>  
<p>진우는 여러 의미가 담긴 한숨을 길게 내쉬며 황동석의 머리에서 손을 뗐다.</p>  
<p>문득 자신의 손으로 시선이 옮겨 갔다.</p>  
<p>비록 일방적으로 이기긴 했다지만 방금 전 여덟 명과 생사를 건 사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은 전혀 떨리지 않고 있었다.</p>  
<p>'이래도 되는 건가?'</p>  
<p>진우는 가슴 부근에 손을 대고 가만히 심장 박동을 느껴 보았다.</p>  
<p>두근, 두근, 두근.</p>  
<p>심장은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.</p>  
<p>'어쩌면...'</p>  
<p>지하 신전에서 돌아온 뒤로 변한 것은,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한 것뿐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.</p>  
<p>그러나 상념도 잠시.</p>  
<p>곧 익숙한 전자음이 울렸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'긴급 퀘스트: 적들을 처치하라'를 완료하셨습니다.]</p>  
<p>[완료 보상이 도착하였습니다.]</p>  
<p>[보상을 확인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보상이 들어왔다.</p>  
<p>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확인을 선택했다.</p>  
<p>'확인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아래와 같은 보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]</p>  
<p>보상 1. 상태 회복</p>  
<p>보상 2. 능력치 포인트 +10</p>  
<p>보상 3. 스킬: '살기'</p>  
<p>'10포인트에다 스킬까지 준다고?'</p>  
<p>엄청난 보상에 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능력치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특히 새로운 스킬이 눈길을 사로잡았다.</p>  
<p>'만약 거미와 싸울 때 질주 스킬이 없었다면...'</p>  
<p>보스를 잡은 건 질주 덕분이었다.</p>  
<p>실전에서 스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괜히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룬석이 억 소리 나게 비싼 게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곧바로 '스킬: 살기'를 확인했다.</p>  
<p>'보상3 확인.'</p>  
<p>띠링.</p>  
<p>[스킬: 살기 :Lv1]</p>  
<p>액티브 스킬.</p>  
<p>필요 마나 100.</p>  
<p>강력한 기운으로 지정한 대상을 1분간 공포 상태에 빠트립니다. 다수의 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.</p>  
<p>효과 '공포': 모든 능력치 -50%</p>  
<p>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상대의 모든 능력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희귀한 스킬이었다.</p>  
<p>다른 효과들처럼 저항력이 높은 상대에겐 통하지 않겠지만, 일단 먹히기만 하면 어떤 상대든 손쉽게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.</p>  
<p>거기다 다수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니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다.</p>  
<p>'좋은데?'</p>  
<p>페널티가 컸던 만큼 보상 또한 상당했다.</p>  
<p>'잠깐...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나?'</p>  
<p>이쪽은 목숨이 걸려 있었는데.</p>  
<p>어디 그것뿐인가?</p>  
<p>진우는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처참한 광경에 눈살이 찌푸려졌다.</p>  
<p>많은 헌터들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 왔지만, 역시 시체를 보는 건 쉽게 익숙해지지 않았다.</p>  
<p>이게 퀘스트가 원하던 결과였다.</p>  
<p>많은 목숨이 걸렸던 퀘스트치고는 보상이 부족한 것 같기도 했다.</p>  
<p>퀘스트가 아니었더라도 황동석 일행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.</p>  
<p>'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고...'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.</p>  
<p>그때 또다시 동굴이 흔들렸다.</p>  
<p>-쿠르르르르릉</p>  
<p>흔들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.</p>  
<p>슬슬 던전을 빠져나가야 할 시간이었다.</p>  
<p>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뒷정리가 필요했다.</p>  
<p>일단은 유진호.</p>  
<p>진우의 시선이 유진호에게 향했다.</p>  
<p>불쌍할 정도로 얼어 있던 유진호가 흠칫 놀라며 시선을 내리깔았다.</p>  
<p>'저건 어떡한다...'</p>  
<p>물론 유진호까지 해칠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그럴 필요도, 이유도 없고.</p>  
<p>하지만 여기서 있었던 일이 밖으로 새어 나가면 여러모로 귀찮아질 가능성이 있었다.</p>  
<p>'그러니 입단속 정도는 시키는 게.'</p>  
<p>좋지 않을까,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유진호가 잽싸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"형님, 살려 주십시오!"</p>  
<p>"..."</p>  
<p>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유진호는 벌벌 떨고 있었다.</p>  
<p>안색도 창백했다.</p>  
<p>눈앞에서 여덟 명이 순식간에 죽었으니 그럴 수밖에.</p>  
<p>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'두려움'이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상황을 조금 이용하기로 했다.</p>  
<p>"내가 왜 그래야 하지?"</p>  
<p>히익!</p>  
<p>방금 유진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.</p>  
<p>너무 심했나, 하는 죄책감도 잠시.</p>  
<p>"돈, 돈이 필요하시면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."</p>  
<p>"나를 뭘로 보고!"</p>  
<p>진우가 인상을 팍 썼다.</p>  
<p>평생 없이 살았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돈을 뜯어낼 만큼 타락하진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야 황동석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.</p>  
<p>"죄, 죄송합니다."</p>  
<p>유진호가 잔뜩 겁먹은 상태만 아니었다면 뒤통수라도 한 대 후려쳤을 거다.</p>  
<p>지금 그랬다가는 애가 심장마비로 쓰러질 것 같아서 최대한 참고 있지만.</p>  
<p>진우의 얼굴이 굳어진 걸 보고, 유진호는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.</p>  
<p>'그러고 보니 방금 전 황동석이 돈을 주겠다고 했을 때도... 혹시 물욕을 버리고 오직 피와 살육의 길만을 정진하시는 건가?'</p>  
<p>유진호의 머릿속에서 진우의 이미지가 더욱더 이상한 쪽으로 굳어지고 있었다.</p>  
<p>하지만 아직 단정 짓기는 일렀다.</p>  
<p>'그렇다면 형님께선 아까 왜 마정석을?'</p>  
<p>불과 조금 전 진우는 거미의 뱃속까지 뒤져 가며 마정석을 꼼꼼히 챙겼다.</p>  
<p>고도의 에너지 자원, 마법 도구의 제작 재료 등 여러 용도로 폭넓게 쓰이는 마정석이었지만, 헌터에게 마정석이란 단어는 결국 돈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유진호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.</p>  
<p>'그렇구나!'</p>  
<p>그것은 피의 대가인 것이다.</p>  
<p>손에 피를 묻힌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뱃속을 뒤지는 수고까지 마다치 않으셨던 거다.</p>  
<p>자신을 건드린 적에겐 일말의 자비도 없지만,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이득에는 관심 없는 피의 수도자.</p>  
<p>'그런 형님의 자비를 돈으로 사려고 했으니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하지.'</p>  
<p>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'아버지의 돈' 따위가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음으로써 형님이 얻을 수 있는 '정당한 이득'이었다.</p>  
<p>힐끔 눈치를 살피니 아직도 진우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. 유진호는 빠르게 말을 이었다.</p>  
<p>"형님, 저를 살려 주신다면 이번 던전의 수익은 형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"음?"</p>  
<p>역시 진우가 관심을 보였다.</p>  
<p>"생각해 보세요, 형님. 10명이 있었던 팀에서 아홉 명이 죽고 형님이 파티의 수익을 독차지하면 누구나 형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?"</p>  
<p>유진호가 보기에 진우는 부정 등록자가 확실했다.</p>  
<p>그것도 살인을 즐기는 상위 랭크의 부정 등록자!</p>  
<p>당연히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처지였다.</p>  
<p>"그래서?"</p>  
<p>"반대로 저와 형님이 살아나가면 계약대로 이 던전의 마정석은 모두 제 것이 됩니다. 팀원이 다 죽었다고 해도 형님께 지분이 없으니 아무도 형님 짓이라고 생각 못 할 겁니다."</p>  
<p>물론 유진호가 의심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.</p>  
<p>유진호는 국내 굴지 기업 회장님의 아들이니까.</p>  
<p>마정석을 팔아 얻을 수익쯤은 푼돈인 것이다.</p>  
<p>"형님께서 마땅히 가져가셔야 할 돈입니다. 황동석 일당을 죽이고 저를 구해 주신 게 형님이시니 정당한 대가 아닙니까?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